

◀기쁜 우리 날들▶ 칼에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남녀의 반응



<남자>

-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동안 카펫 위에는 핏방울이 계속 떨어진다.
- *아내가 귀가하면 손가락이 절단될 뻔 했다고 설명한다.
- *아내가 붕대를 감아주는 동안 손을 내맡기고 영웅 같은 표정을 짓고 앉아 있다
- *적철구 손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녁식사는 커다란 스테이크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아내가 스테이크를 사러 간 사이에 손가락에서 아직도 피가 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붕대를 풀어본다
- *피가 나올 때까지 상처를 꼭꼭 눌러본다. 그리고는 아내가 붕대를 제대로 감지 않았다고 투덜거린다.
- *아내가 카펫에 묻은 핏자국을 지우는 동안 드러누워서 축구경기를 시청한다.
- *30분에 한 번 씩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가서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렸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는 당연히 몹시 피곤해한다.
- *상처에 독이 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며 직장에서 두 시간짜리 외출 허가를 받는다.
- *회사로 돌아오면 여직원에게 붕대로 감은 손가락을 보여주며 동점심을 유발한다.
-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 붕대로 감은 손가락을 보여주며, 손가락을 다친 것이 무용담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다.

<여자>

-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우선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카펫에 핏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나머지 한 손으로 구급약이 들어 있는 통을 찾아서 손가락에 붕대와 반창고를 붙인 뒤, 하던 일을 계속 한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담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1월 14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오
용 해 원



그대의 속주머니 깊숙히 들어있는 신약성서 속에 하나님은 잠들고 계시지 않다오.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에도 그분은 함께 하신다오. 횡단보도의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우면서 울 때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고 밤을 지키는 병사가 졸고 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감옥에도 하나님은 계신다오. 그대 기도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그대의 눈 앞에 언제나 볼 수 있는 두 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오. 고민될 때 화가 날 때 아픔으로 몸져 누울 때 절망으로 죽고 싶을 때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다오. 우리는 순간 순간을 그분이 보아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원까지 보고 계신다오. 기쁠 때 소망 있을 때만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오. 그대가 멀리 도망하고 싶어할 그 때에도 가장 가까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오.

◀말씀따라 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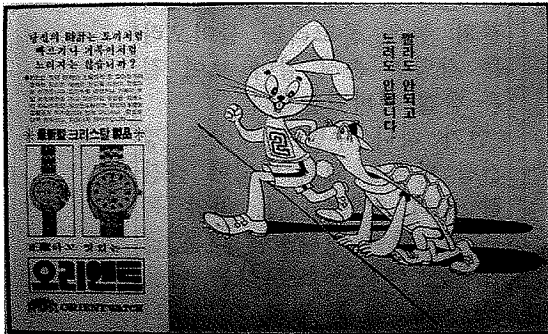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인품따라 행하기▶

많이 배웠다고
뽐내는 것은 지식이요
그것을 겸손해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땐 그랬지 ▶ 오리엔트 시계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됩니다” 라는 광고 카피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그림과 함께 아주 적절하게 조화된 시계 광고멘트였습니다. 당시 오리엔트 시계 외에 시티즌이라는 시계는 국산제품으로 성능도 좋았던 기억입니다. 시계 하나를 차게 되면 귀족이 된 것인 양 뿌듯한 마음 들던 소박한 시절, 들고 돈 시계바늘만큼 다시 돌려놓고 따뜻한 기억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y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3(계21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63장	다 같이
기도 Pray		김교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삼서 1:2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새해에는 더 건강한 믿음을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64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감사의 시간		
응답송 Response Song	460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헤아릴 수 없는데 너무 작은 것으로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성전건축헌금 어느교우의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1,,284+한화30,000	총액:\$288,378
-------------------------------	--------------

◆1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량	안내
31	장현중	박일영	본당:김순자.윤주야
7	정덕수	백제성	현관:최재학.김교섭
14	김교섭	양경배	새교우:이광희.이근평
21	김반석	이광희	장유진
28	김순자	이근평	

◆1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7	신년주일 신년새벽기도회(2-5)
14	Holy Sepulchre farewell 주일
21	새성전입당 제직결단예배(24)
28	수요예배 시작(31)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 1.교우소식
*김선화 집사 모친. 손주들과 함께 한 지난 1년의 생활을 가슴에 담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 2.오늘은 “Holy Sepulchre farewell 주일”입니다
*1999년 7월 첫주일(18일) Ponsonby의 사모안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2001년 2월의 첫 주일인 4일, 30여명의 성도가 머그 컵 30여개가 든 BOX하나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정든 자리두고 떠납니다. 다시 첫 마음을 가지며 더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예배당에서 기념사진촬영을 갖겠습니다. 5분 정도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다음주일은 “성전이전 첫주일예배”
<시간> 오후12:30분 <장소>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
*가족끼리 같은 좌석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 4.2007년 결식자 급식 자원봉사
*김영원.김윤숙.방명아.정혜숙.임숙경 <담당:임숙경>
- 5.2007년 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
*교사(아동부.학생부). 성가대.주차위원

◀착한 시인들▶ 내게 여행은 김성국

특별한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날 넓고 허한 들녘의 예배당은 초저녁 외로움 안아주는 어머니였다.
나 없던 세상부터 서 있던 예배당이 지나는 나를 걸로 불러 주었다.
그 앞에 섰을 때 추함을 보이려 하지 않은 내가 부끄럽고 커지고 싶어 한 내가 추했다.
다시 지나치면 어김없이 들리리라 했지만 실은 예배당 하나 지키며 그냥 거기에 눌러 있고 싶었다.
내년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나이 드는게 두려운게 아니다 새로움에 두근거림이 멈추고 일상에서 경건함을 잃을까 두려움이 크다

이런 여행 테마는 시골 예배당이었습니다.
시골 소녀 눈빛 같은 맑게 닦여진 예배당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인가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곳에 예배당이 있어 문고리 열고 들어섰습니다. 잠근 듯이 걸쳐 놓은 문고리는 들어오라는 강렬한 손짓 같아 보여 걸음 한결 가벼웠습니다
인가 하나 주변에 없어도 경건함 만큼은 교회 마당에 잔잔히 널려 있었습니다. 하얀 목조 예배당이 지켜주는 너른 들판에는 예배당 사모하는 마음이 넓디 넓게 퍼져 있었습니까.